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1999년도 표어 ◎

"우리를 고치시는 그리스도" (마8:7)

◎ 4대 실천강령 ◎

- 1. 은혜 주신 하나님을 믿고 내가 먼저 회개한다.
- 2. 고치시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서로 위로한다.
- 3. 보혜사 성령님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바친다.
- 4.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린다.

발행인: 이종운 발행처: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02) 517-7651~5 팩스 (02) 512-1225 http://seoulchurch.or.kr

사명자대회

오늘 교구별로 노방전도

I·II·III부 예배 후... 교회 주변을 대상으로

'99 사명자대회 행진이 오늘로 셋째주에 접어들었다.

50일 연속기도회, 금요기도회 등 기도운동과 70인전도대 훈련, 태신자 전도 등 전도운동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I·II·III부 후 전 교인이 교구별로 나누어 교회 근방을 대상으로 전도 활동을 펴게 된다.

'99사명자대회는 사명을 받은 자들이 민족 75%를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해 기도와 전도에 전념하는 운동으로 오늘은 예배 후 각 교구별로 모여 노방전도의 시간을 갖는 것이다.

전도대상 지역은 교회 인근으로 영동시장에서 삼정호텔 부근까지 편의상 모두 5개 구역으로 구분했다. 이 5개 지역을 우리 교회 12교구에서 5개 전도단으로 나누어 각기 맡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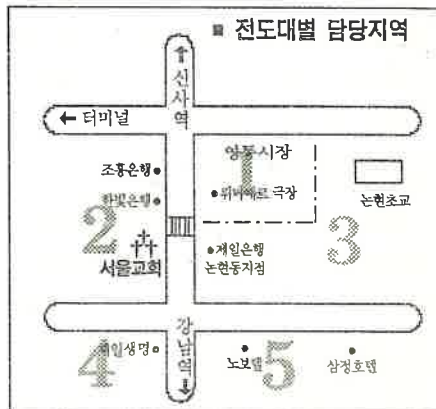
노방전도에 나서게 된다.

각 교구에 소속된 교인들은 예배 후 전도대별로 먼저 교회 앞 지정된 집결지에 모여 발대 기도를 드린 후 인솔자의 안내에 따라 각각 정해진 구역으로 이동하게 된다.

전도방법은 전도지를 활용하거나 이밖에 각자의 방법대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전도하던 된다.

각 교구별 담당 구역과 모이는 장소는 오른쪽 표와 같다.

주간에도 노방전도, 축호전도, 잃은양 찾기 운동이 계속 되어야 할 것이다.



구분	교구	전도대상 지역	집결지
제 1전도대	1·2교구	영동시장	교회정문 옆 주차장
제 2전도대	3·4교구	교회 뒷편, 한빛은행 ~ 영동사거리	횡단보도 앞 주차장
제 3전도대	5·6교구	제일은행 뒷편 ~ 논현초등학교 주변	교회 정문 앞
제 4전도대	7·8교구	제일생명 ~ 강남역	교회 앞 (좌측)
제 5전도대	9·10·11·12교구	노보텔, 삼정호텔 부근	교회 앞 (우측)

·태신자를 위하여·

▶ 태신자(胎信者)란?

어머니의 배속에 있는 어린 생명을 태이라고 합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그 마음에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로 작정하고 마음에 품으면 그가 곧 태신자입니다.

▶ 태신자카드의 활용

태신자카드의 보관용과 제출용이 있습니다. 보관용은 개인이 자신의 태신자를 기억하며 기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출용은 교회에서 태신자들을 관리하고 각종 유인물을 발송하는 데에 활용합니다. 따라서 태신자 카드의 주소는 우편물이 잘 도착할 수 있도록 상세하고 정확하게 기록해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사명자대회 기간 중 작성하신 태신자 카드는 주일예배 시 헌금함이나 헌관 앞에 비치된 신청함에 넣으시면 됩니다.

▶ 나의 태신자를 위해서 해야 할 일

- 1. 매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 2. 전화, 편지로 혹은 기회를 만들어 직접 방문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려줍니다.
- 3. 태신자와 친구가 되며 그의 필요를 채우며 그를 돕습니다.
- 4. 시간으로, 물질로, 몸으로 태신자의 영적인 출생과 성장을 위한 해산의 수고를 기꺼이 감당합니다.

주님, 이 생명을 구원해 주옵소서!

'99 사명자대회 태신자 명단 (다음 호에 계속)

전도자	태신자	전도자	태신자
유후자	이일홍 이현용 김미선	김현주	김대용 김필순 이상근
	이영주 이광용		박군자 조선비
조정옥	조운혜 장동숙 조성옥	최난수	최진철 최진삼 최진석
	조성혜 조성현 홍동기	유신	유동신 유명훈 유승훈
	조병철 조정훈 최완옥	박철훈	박명훈
	조선행	이종혁	이종원 박현경

·태신자카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여러 성도가 여러분의 태신자를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이번주 사명자대회 주요행사

- ▶ 50일 연속기도회: 2층 예배실
- ▶ 금요기도회
 - 주력교구 및 부서: 3·4교구, 에스더전도회, 임마누엘찬양대, 사랑부, 장년부
- ▶ 70인전도대 훈련: 30일(토) 오후 2-3시
- ▶ 노방전도
 - 교구별 노방전도: 24일(주일) 예배 후
 - 병원전도(대학부, 청년부): 주간에도 계속
 - 이웃·친지 전도
 - 등산전도: 30일(토)
- ▶ 태신자전도
- ▶ 다라방 배기운동: 잃은 양 찾기, 가족초청전도

익우고 계십니까?

서울교회 설립 제 8주년을 기념하는 전교인 성경암송대회가 임박했다. 11월 초 교회학 교별 토너먼트 방식으로 예선을 거쳐 본선, 결선 등으로 이루어질 올해 성경암송대회에 암송 범위는 시편 119편이다.

이사야 강해

이스라엘의 고통

이사야 28장 23 - 29절

아리엘은 예루살렘의 별명이며 또한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제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별명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예루살렘은 본래 여부스족 속이 살던 곳으로 다윗이 점령하여 수도로 삼고 요새화 하여 다윗성, 혹은 시온성이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은 이레와 살렘의 합성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평화의 성입니다.

1. 아리엘은 화를 받게 될 것이다

선지자는 아리엘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예루살렘이 화를 받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은 해마다 하나님께 제사는 드리지만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있고 예배는 형식만 남아있었습니다(1절). 이스라엘의 남자는 1년에 세 차례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성소에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리엘을 괴롭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앗시리아의 침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를 때리실 때 사람을 통해서 때리시거나 전쟁을 일으키십니다.

2절 말씀은 예루살렘이 불같은 전쟁의 환난에 팔려 마치 불타고 있는 제단과 같으리라는 것과 사냥꾼의 공격을 받은 사자처럼 계속 죽어가면서도 용감하게 반항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때를 맞았을 때 무릎을 꿇고 회개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치 사자처럼 하나님께 덤벼드는 불행한 자가 되었습니다.

형식적인 종교 습관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찾으시고 가장 중요한 것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서 조사되고 처벌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벌은 변두리가 아닌 그 나라 심장부에 일어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징벌인 줄 알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다른 곳이 아닌 아리엘을 때리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2절)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으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로 인하여 괴로움을 당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감사한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포로로 끌려가도록 하신다고 했습니다(3절). 예루살렘을 포로로 끌고가는 원수는 곧 하나님의 손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리엘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비천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을 배우고 회개할 때까지 낮아지게 하십니다(4절).

기 멸망을 당했습니다. 앗시리아가 일시에 패함으로 그들이 유대를 잡았던 것은 꿈이나 환상같이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7절).

아리엘, 즉 하나님의 도성을 치는 자는 하나님과 싸우는 자요 그들은 꿈꾸는 자와 같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범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 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그렇지라도 네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 가는 거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곤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 같이 밤의 환상 같이 되리니 주린 자가 꿈에 먹었음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음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 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사 29:1-8)



이종운 목사

하나님은 큰소리 치던 아리엘이 간담이 서늘해져서 작게 말하고(4절) "하나님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티끌에서 나는 목소리처럼 낮게 말한 히스기야처럼 낮아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아리엘에 행하심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2. 앗시리아도 망할 것이다

앗시리아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도구인 줄도 모르고 교만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아리엘, 곧 하나님의 도성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처소이고 성도들이 서로 기쁘게 교제하는 장소입니다. 이같은 예루살렘을 침략한 앗수르는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멸망한 것입니다.

앗시리아의 군대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세미한 티끌'같아서 바람에 날아갈 것이며 '블려가는 겨'와 같이 순식간에 일어난다고 했습니다(사 37:36).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는 반복해서 경고를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대적자들은 순식간에 망하게 하십니다. 앗시리아 군대의 멸망은 너무도 돌연한 것으로 우뢰, 지진, 큰 소리, 회오리 바람, 폭풍, 맹렬한 불꽃으로 비유했습니다. 악인의 징벌은 이처럼 항상 돌연히 옵니다. 앗수르군은 한 천사에 의해 갑자기

죄를 두려워하지 않으니 꿈꾸는 자와 같이 망할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떠나고 죄를 지어 하나님을 슬프게 하면 하나님의 내리시는 징계를 피할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 결국은 길고 긴 포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애곡을 해야 했습니다. 다윗의 명성도 예루살렘을 구할 수 없었고 아리엘의 이름으로도 그 슬픔은 면할 수 없었습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이 슬픔은 고통을 당할 때의 가혹한 슬픔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슬픔 속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사람들은 겸손해야 합니다. 앗시리아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을 받았으나 교만하여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은 무섭게 때리십니다.

아리엘의 슬픔이 아닌 예루살렘의 영광을 회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수능을 앞둔 이들에게

김요한(대학부)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 4:6-7)

우리는 흔히들 자기가 하고 있는 일들이 잘되면 먼저 자기 자신의 노력과 회생을 생각한 후에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고, 만약에 자기가 하는 일이 잘 되지 않으면 원망을 하나님께 먼저 돌리곤 합니다. 저 역시 그런 사람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작년까지 재수를 하면서 하나님보다는 저 자신의 능력과 세속적인 힘을 먼저 찾고 의지하곤 하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고민과 어려움속에서 좌절도 겪었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가운데 저에게 배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습니다. 항상 주님은 제가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허락해 주셨고 지금의 저는 그때의 주님의 사랑을 좀 더 일찍 깨닫지 못한 것이 아쉽기만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언제나 저의 곁에 함께 하심을 알고 있으니깐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리라” (잠 16:3)

수험생들께 당부하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원하는 것을 구하기에 앞서 주님께서 당신에게 원하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간절한 기도와 함께 구하세요. 주님께서 무엇이 필요한 지를 다 알고 계시고 또 그것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치를 시험(test)으로 인하여 시험(temptation)에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수험생들에게서 흔히 수능이 다가오면 예전에 없던 어두운 모습들을 발견하게 될 때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수능시험은 그저 인생의 수많은 도전 중 하나일 뿐이므로 시험 앞에서 좌절하거나 짓눌리기보다는 편안한 마음으로 시험을 보시길 바라고 시험을 통해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주님께 영광돌리시길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 4:13)

여러분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르길 바랍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께서 항상 함께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찾고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실수 있기를... 그리고 많은 지체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럼 fighting!!

수능 시험을 앞두고

전신일(고등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23:10).

이 말씀은 제가 가장 좋아하며 언제나 힘을 얻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단련하고 계신 이 과정에서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기를 스스로 다짐하곤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지나 정금같이 되어 하나님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 해를 준비해 왔던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1월 17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막바지에 이르러 지금까지 해왔던 과정들을 하나 하나 돌이켜 보면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지 못했던 내 자신이 하

나님 앞에서 너무 부끄럽고 죄송스럽기만 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시험을 앞둔 수험생 모두가 마찬가지로지만 막상 시험불 날이 가까와 오니 불안한 마음을 떨치기가 힘듭니다. 주님을 전하는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일뿐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번 시험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저의 마음 속에도 불안감이 조금씩 틈을 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 말씀을 따라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약속하셨던 평안을 누리면서 다시 한 번 마음을 다잡으며 담대해 질 수 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입기를 마치며●

“피그말리온을 찾습니다”

김민철(청년부)

그리스 시대에 피그말리온이라는 조각가가 있었다. 그는 세상의 여자들이 모두 맘에 들지 않아 자신이 직접 이상적인 여인의 모습을 조각했다. 그리고 그 조각상이 마치 자기 아내인 양 극진히 대했다. 어느 날 그가 조각상에 입을 맞추니 조각이 살아있는 여인으로 변했다.

영국의 극작가 버나드쇼는 피그말리온에 얽힌 신화로 희곡을 썼다.

이 작품을 미국의 워너브라더스사가 다시 영화로 만든 것이 '마이 페어 레이디'다. 오드리 헵번이 시골의 천한 여자역으로 나온다. 그 시골 여자는 어느 훌륭한 교수의 헌신적인 보살핌 덕택으로 고결한 숙녀로 변신하게 된다.

* * *

인간은 묘하게도 능력있고 착한 존재라고 기대하고 그렇게 대해 주면 실제로 그 능력과 인격이 성장한다. 반대로 무능하고 미천한 존재로 마구 대하면 실제로 그 능력이 사장되고 만다. 최근 매스컴에서 칭찬받을 인물을 찾거나 친절을 독려하는 프로들이 인기를 얻는 것을 보노라면 우리 사회에 이런 피그말리온 같은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아서 다들 칭찬과 격려에 목말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 * *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끝내 당신을 배신해 버렸던 베드로에게 찾아가셨다. 책임 추궁을 하셨을 법도 하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다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고만 물으셨다. 사랑은 책망보다 인간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더 강하다.

* * *

1년 동안 청년부를 사랑했다. 때로는 나 스스로 영적 고갈을 느꼈지만, 그러나 이상하게도 내가 남에게 사랑을 줄 때 나에게 더 힘이 솟았다. 울물물은 퍼낼수록 새 물이 샘 솟듯 내가 가진 사랑의 여유분을 남기지 않고 갹그리 퍼부으니 오히려 내 맘이 넉넉해지는 역설을 경험했다.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사랑을 자기만 가지고 있으면 정체에 불과하다. 나누어 줄 때 비로소 '샘 솟는' 것이다.

청년부는 11월 7일에 정기총회를 갖고 새 임원을 뽑게 된다. 또다시 한 해 동안 청년부를 정성껏 조각하며 사랑을 베풀 피그말리온은 누가 될 것인가.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사람들이다.

새 예배당 건축을 위한 99 열린바자회 접수된 물품들

접수번호	출품내역	기증자(교구)
25	의류 1벌	박춘자(1교구)
26	의류 9벌, 넥타이 16매, 잠화 등	원복순(1교구)
27	공업용미싱 1대	길수영·임송자(1교구)
28	미용팩 15개, 게르마늄항아리 8개	황정옥·주경자(1교구)
29	의류 31벌	박경자(1교구)
30	의류 26벌	최난수(1교구)
31	황토비누 9개, 크린싱크림 9개	이영애(1교구)
32	의류 4벌, 구두 1켤레	이은희(1교구)
33	의류 10벌, 구두 3켤레	한주찬·김수호(1교구)
34	양복 2벌	유근종·배은희(1교구)
35	양복 상품권(200만원)	최정환(1교구)
36	아동복 19벌	이금순(1교구)
37	의류, 카세트, 식기건조기	오도식·금용숙(1교구)
38	참고서 5권	오유식·이봉규(2교구)
39	비데 1점	최양진·장윤숙(3교구)
40	옥목걸이 30개	심재을(3교구)
41	번압기 1대	나점균·최근자(3교구)
42	등산화 1켤레, 가죽코트 3벌	임인숙(3교구)
43	드라이어 1개, 자켓 5벌	김인순(3교구)
44	의류 9벌	최정옥(3교구)
45	의류 13벌	김명숙(3교구)
46	자전거 1대, 팔찌 1개, 도서상품권 등	정윤돈(3교구)
47	의류 3벌, 가방 1개	임종현(4교구)
48	의류 2벌, 그릇 2개 등	김복려(4교구)
49	벨트, 지갑 2점	장효옥(4교구)
50	전기요 4개, 의류 등	송영강(4교구)
51	의류 4벌, 핸드백	이승희(4교구)
52	위생용품(330만원 상당)	전기섭(4교구)
53	양복 1벌	박정섭(4교구)
54	도서 200여 권, 운동기구 외 6점	신순우·김복순(4교구)
55	아동용 도서 33권, 구두 등	강석우·나연산(4교구)
56	바자 현수막 2장, 이불 100장, 의류 등	김규태·박미혜(4교구)
57	어린이컴퓨터, 의류 3벌	김천수·박순옥(4교구)
58	의류 4벌, 운동기구	김상철·최원자(4교구)
59	운동복 30벌	김세재·이운진(4교구)
60	골프용품, 주방용품	최공천·이정희(5교구)
61	의류 19벌	안창휘·정봉금(5교구)

접수번호	출품내역	기증자(교구)
62	국제전화카드 24장	김병용(6교구)
63	금반지 3돈, 지갑	김동연·김영란(6교구)
64	운동기구 등 9점	김종자(6교구)
65	의류	김정윤(8교구)
66	핸드백 91개, 벨트 100개	김용숙(10교구)
67	매직타올 2000매	이강인·허숙(11교구)
68	장식품 6점	정호진·김유정(11교구)
69	도자기 1점, 의류 7벌	김예환(11교구)
70	세탁기	민순구·이영희(6교구)
71	주방용품, 커피세트	이남호·여옥기(12교구)
72	회화테이프 3세트, 앨범	나미용·김진영(12교구)
73	녹차 2통	나상민·김진영(12교구)
74	인형의 집, 동화책, 그릇, 의류 등	임상헌·서희숙(12교구)
75	천안공원표지 1기	정용철·김윤자(12교구)

바자 기간 중 드린 간해헌금 드리신 분

심재을 방계은 이승민 김복녀 이승희 송두심 정하자 한나제1전도회 최정자 하경섭·나금주 소정부·강희자 김규태·박미혜 노문환·장정화 이민화 하영수·박정순 오유식·이봉규 임광식·노영숙 이종윤·홍순복 김은애

* 바자 기간 중 접수된 물품 및 기증자 명단은 다음 호에 계속 게재됩니다.

■ 동정 ■

* 김영한 목사(장년부 지도, 협동목사)는 25일(월)부터 27일(수)까지 숭실대정보과학관에서 숭실대학교 개교 102주년 기념학술대회를 개최한다.

* 이번 주 식사는 조성업 집사·전완순 권사 가정에서 제공했다.
* 새가족부는 18일(월) 새 예배당 건축 위한 기도회 및 현장방문을 한다.

* 전영순 권사 전화번호 변경 ☎ 6214 - 1909.

■ 이종은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98.1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XX 1188KHz) 생명은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서울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사명자대회를 위해
2. 진학과 취업을 앞둔 청소년들을 위해
2. 서울성경대학교 목회자신학세미나를 위해
3.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예배당 건축을 위해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주 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 양 예배	주일 오후 5시
수 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 요 기도회	오후 9시
새 벽 기도회	매일 새벽 5시30분

† 교외약도

